

문대통령-의장단 “협치” 한목소리

청와대 100분 오찬 간담회
여 “나치도 가짜뉴스 동원”
야 “언론의 자유 위축 안돼”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3일 청와대내에서 약 100분간 오찬 간담회를 하며 “협치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냈고,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현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역시 가짜뉴스 및 언론중재법 관련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독일 나치와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가짜뉴스를 동원해 유대인 다 매도해놓고 학살을 진행했다. 그만큼 가짜뉴스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탄핵 괴담 얼마나 가짜뉴스들이 세상을 흔들었나”라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다”라며 “외국 정상들도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정치권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찬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부터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조 직접고용 촉구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노조 직접고용 촉구 청와대 도보행진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의부장은 “위드코로나 등으로의 전환할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추석에 농수산물 선물 가능 액수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제안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때가 됐다”며 종전선언 추진을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최근 전자발찌 훼손 도주자 문제와 관련해 “성

범죄자 재범 시 양형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는 말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권력 누수 현상을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장애 비하가 될 수 있어 표현 자체를 싫어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 노력은 다음 정부로도 이어져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언론중재법

에 대해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정신이 협치의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야당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여야, 특히 여당의 협조와 양보도 잘 받아내서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정진석 부의장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 옳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야, 경선레이스 출발부터 파행 기로

“정홍원, 윤 편들기” 집단행동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가 총성을 울리자마자 배랑 끝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역선택 방지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면서 경선 일정도 파행할 조짐이다.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안상수, 박찬주 경선후보는 지난 4일 밤 공동성명을 내고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던 ‘경선준비위원회’ 원안을 즉각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경준위 원안’의 원점재검토를 시사한 정홍원 선관위위원장이 ‘윤석열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만약 선관위가 경준위 원안을 뒤집고 역선택 방지조항을 강행한다면, 5일 오후 당사에서 열리는 ‘공정경선 서약식’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경선 후보의 절반가량이 1차 예비경선의 첫 번째 일정부터 보이콧하겠다는 의

미다.

공동성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장성민 후보도 SNS에서 “후보자 TV토론 한번 하지 않고 후보가 되려는 윤석열 후보의 출당조치를 당 지도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정경선 서약식을 시작으로 열흘간 진행되는 선관위 경선일정 전반이 파행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선관위는 압박 면접, 청취자 대화, 국민보고회 등 열흘간 일정을 진행한 뒤 ‘100% 여론조사’를 통해 경선후보 12명을 8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후보는 무난히 8배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황교안, 박진, 장성민, 안상수 등 다른 후보들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 요청하세요

네이버·카카오 등 안내
대상자 여부·지급액 등

직장인 A씨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가 눈치채지 못했다.

맞벌이를 하는 터라 아내의 건강보험료도 알아야 하고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컷오프’ 대상인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계산이 싫다면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좋다.

5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급대상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 정보를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는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신청 요일제 시행(6일)에 앞서 5일부터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이달 4일까지 알림서비스를 요청했다면 5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사용 가능 지역 등을 안내받는다.

다만 5일 이후 알림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다음 날부터 국민지원금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국민지원금 신청을 놓치거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 사용기한도 미리 알려준다.

/연합뉴스

여 대선후보 1차 슈퍼위크서 결판날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에 본격 돌입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본선 직행이 가능한 ‘매직넘버’가 얼마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3차 선거인단 모집 현황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190만명의 선거인단이 등록됐다.

앞서 1·2차로 모집된 국민·일반당원과 대의원·권리당원까지 186만명에 이르렀던 것을 고려하면, 3차 모집에서 불과 4만~5만명이 추가된 셈이다.

최대 250만명을 내다봤던 애초 전망치는 220만명 안팎으로 하향조정되는 분위기다.

투표율 변수가 있겠지만, 일단 50% 투표율을 기준으로 투표인원 110만명의 절반인 55만명이 ‘매직넘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투표율이 절반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민주당 경선 투표율(2017년 76.6%, 2012년 56.7%)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 대진·충남 순회경선 투표율은 48.4%였다.

당내서는 64만여명의 국민·일반당원 투표결과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가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만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진·충남에서 과반 득표한 여세를 몰아 ‘1차 슈퍼위크’를 압도한다면, 일찌감치 대세론을 굳히고 10월 3일 2차 슈퍼위크에서 매직넘버를 확보할 수 있다.

이재명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1차 선거인단에는 각 조직을 총동원한 충성도



균형발전 공약 발표하는 이낙연

실에서 ‘4+4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국가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높은 표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충남 이상의 득표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직넘버’ 55만...12일 분수령
이재명 측 충남 이상 득표를 기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청주 소재 이장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4+4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한다는 내용의 국가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위크에서 차이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코로나 안정되면 내달 거리두기 조정

정부가 앞으로 한달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면 내달부터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향후 4주간의 잘 넘겨서 적절한 수준에서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내달 3일까지 4주간 재연장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했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윤반카트 고온스팀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